

8 인터뷰

“익숙하지 않은 이야기 전달하고파” 무명 감독에서 대중상 수상하기까지

김동희 기자 kdh0626@khu.ac.kr
공예진 기자 yejin514@khu.ac.kr

강윤성(물리학 1990) 영화 감독

영화의 독창적 연출과 호소력은 단순 유익을 넘어 경험하지 못한 세계로 관객을 데려다준다. <범죄도시>, <카지노> 연출과 각본, <롱 리브 더 킹>의 연출을 맡은 강윤성(물리학 1990) 동문에게도 영화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 위태로웠던 17년 간의 무명 시절에서부터 대중상의 ‘시리즈 감독상’을 수상하기까지, 우리 신문은 강 동문의 무모하리만큼 끈질긴 영화인의 삶 속에서 교차했던 ‘희(喜)’와 ‘비(悲)’를 들어봤다.

영화인을 동경했고 영화 감독이 되기로 하다

“친구들이 저를 찾으려면 만화가 게로 가면 된다고 할 정도로 이야기를 좋아했어요.” 강 동문의 어린 시절은 공상과 이야기로 가득했다. 게다가 ‘영화광’이었던 어머니 덕분에 영화를 자주 접하며 영화와 친해졌다. 주말마다 흥미로운 이야기로 가득 찬 영화는 그가 한 주 동안 가장 기다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때는 영화와 관련된 직업을 가지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죠”라고 강 동문은 말한다. 주변에 예술인은 전혀 없었고, 엔지니어였던 아버지를 따라 이공계의 길을 걸으려 했던 그에게 ‘영화’란 그저 동경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고등학교 3학년, 한 토크쇼에 나온 윤석화 배우의 이야기를 듣고 ‘영화인’에 대한 동경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연기를 위해, 작품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니 너무 감명 깊더라고요.” 뚜렷한 목표 없이 흘러가던 삶에 처음으로 이정표가 세워진 순간이었다.

그래서 처음엔 배우가 되려 했다. 대학에 입학한 후 연극동아리 ‘경희극회’에 찾아갔지만, 문은 잠겨 있었다. 발걸음을 돌려 잠시 들른 화장실에 다른 동아리의 홍보물이 눈에 들어왔다. 영화 동아리였다.

그렇게 운명처럼 들어가게 된 동아리, 그리고 대학교 2학년 무렵에 본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저수지의 개들>은 더 이상 배우가 아닌 ‘영화 감독’의 꿈을 꾸게 만들었다. “지금까지 봤던 영화 서사 구조와 완전히 다른 식의 이야기였어요. 모든 예측을 무

너뜨리는 충격이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직접 글을 쓰고 연출하는 감독이 되겠다고 목표를 잡았어요.”

‘직접 글을 쓰는 감독’이라는 목표에 걸맞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했다. “어렸을 때부터 수학을 곧잘 했다”고 밝힌 강 동문은 소위 말하는 ‘이과 머리’를 ‘문과 머리’로 바꾸기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지구력으로 글을 썼다고 회상했다. 대학교 4학년 때 <집에서 영화 만들기>라는 책도 출간했다. “설명체 정도의 글이었지만 글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때부터 조금씩 문학적 감수성을 갖게 되더라고요.” 기회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신인 감독으로는 어린 나이인 서른에 계약을 맺고 싶다는 제작사가 나타났고, 상업영화 감독 데뷔의 설렘을 안은 채 영화를 준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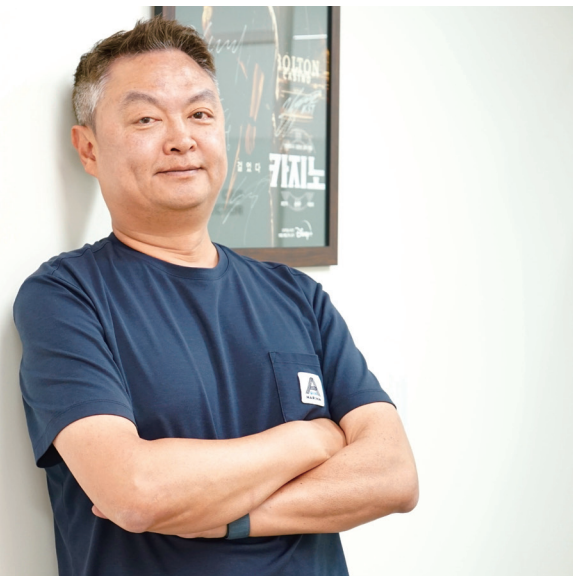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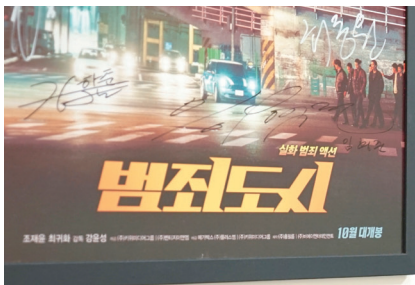
현명한 사람은 포기할 줄도 아는 것

그러나 1년 만에 제작이 좌절됐다. 강 동문이 첫 작품인 <범죄도시>를 세상에 내놓기까지는 그렇게 17년이 흘렀다. 30살의 어린 신인 감독은 47살이 됐다.

“제가 쓴 작품을 어떤 제작사나 배우가 좋아해 줘서 진행이 이뤄졌는데, 2~3년 뒤에 또 무산되고. 그때쯤 새로운 글을 써서 진행되다가도 또 1~2년 뒤에 무산되고. 계속 이런 식이더라고요.” 강 동문이 영화를 놓을 수 없었던 이유는 자꾸만 꺼질 듯 꺼지지 않았던 희망의 등불 때문이었다.

<범죄도시> 역시 처음부터 제작이 확정됐던 작품은 아니었다. 3년 동안 준비한 범죄도시의 투자가 최종 무산됐을 땐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라고 했다. 40대 후반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와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아내도 그를 붙잡았다. “영화 하나만을 위해 한평생을 살았는데, 좋아하는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더 이상 새로운 이야기를 쓰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겼죠.”

영화를 그만두겠다고 마음먹은 후 스페인 여행을 떠났을 때 비로소 ‘범죄도시’의 투자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렇게 3년간 30번 이상 각본을 고쳤던 영화가 세상의 빛을 보게 됐고, 688만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청소년관람불가라는 연령 제한을 생각하면



강 동문은 “여러 국가의 배우들이 주연으로 참여하는 작품을 기획하고 싶다”면서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김동희 기자)

엄청난 성과였다.

그러나 강 동문은 “될 때까지 시도해 보라”는 조언은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최선은 다하되 잘되지 않는 일은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 강 동문이 던지는 현실적인 조언이다. “다시 돌아가 한 발치만 떨어져서 보면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닌 경우가 많은데, 영화 이외에 좋아하는 일 하나 만들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는 강 동문은 “오로지 하나의 일만 바라보며 해피엔딩을 꿈꾸지 않았으면 한다”며 진심을 담은 조언을 전했다.

그럼에도 영화 감독을 사랑하는 이유

“만약 30살에 데뷔에 성공해서 영화 감독이 됐다면 지금쯤 영화와 관련 없는 삶을 살고 있었을 것 같아요.” 강 동문은 그간 거처온 인고의 시간을 떠올리며 작품관과 영화관이 명확해지는 시간이 된 듯하다고 말

했다.

강 동문이 생각하는 영화의 매력은 ‘여러 이야기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이다. 영화는 몇 시간 동안 외부와 단절된 장소에서 상영되기에, 이야기를 가장 호소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매체다. “사람이 살아가는 때 항상 명확한 바운더리가 존재하잖아요. 자신의 바운더리 밖에서 벌어지는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은 이야기, 궁금해할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강 동문은 오늘도 ‘이야기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강 동문은 최근 드라마 장르의 매력을 새로이 느끼고 있다. OTT 플랫폼 디즈니플러스와 협력해 내놓은 <카지노> 역시 시나리오와 대본을 작가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작성했다. 영화만 제작해 오던 그에게 쉬운 도전은 아니었다. 영화보다 짧은 제작 기간에 비해 촬영량은 영화의 몇 배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호흡이 긴 이야기를 한 화씩 넘기

면서 모두 보게끔 만드는 구조 방식도 흥미롭고, 영화와 다른 이야기 구조라 훨씬 재미있게 느껴진다”며 미소를 지어 보인 강 동문의 목소리에는 천진한 즐거움이 느껴졌다. 강 동문의 첫 드라마 작품 <카지노>는 지난해 대중상에서 ‘시리즈 감독상’을 수상했다.

현재는 내년 7월 공개를 목표로 디즈니플러스의 새로운 오리지널 시리즈 <파인> 제작에 몰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강 동문에게 어떤 감독이 되고 싶은지 물었다. “영화 <콜라트럴>은 마이클만 감독이 60세가 넘어 찍었던 작품인데도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거든요. 저도 나이 들어서도 젊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감각적인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감독이 되길 바라죠. 그래서 현장에서 젊은 스태프들을 후배가 아닌 동료로 생각하고 의견을 나누며 연출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연출 진행 방식이 변치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